



“3공 기사시절 박대통령 비판했다 테러 당해”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출신 각계 원로들을 만나 근황을 들어보고 지난 세월을 반추해보는 기획물을 연재합니다. 그동안 미처 못다한 얘기와 현 세대에 대한 진단도 곁들여드립니다. 시대를 앞서 살아간 원로들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약력**
- ▲ 1935년 12월19일 나주 출생
 -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 동아일보 정치부장
 - ▲ 제 9~12대 국회의원
 - ▲ 체신부·노동부·통일부(부총리) 장관
 - ▲ 별기에 대심자훈장, 청조근정훈장

독재의 칼날이 도처에서 지식인을 옥죄던 3공 시절, '소신은 만능인가'라는 칼럼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언론인 최영철(71). 그런데도 그는 박 대통령에게 발탁돼 노태우 정권 때까지 국회 부의장, 통일부 장관 겸 부총리 등을 역임하는 등 호남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20여년을 입신양명(立身揚名)했다.

2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 로비에서 최 전 부의장을 만났다. 그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매서운 눈에 속에도 고향 후배를 반기는 정 많은 마음은 여전했다.

당시 '소신은 만능인가' 칼럼 써 지금 읽어보면 등골에 식은 땀

근황을 물었다. 그는 입가에 웃음을 띠며 "이를 놓고 하루 쉬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요"라고 답했다. 93년 김영삼(YS) 정권의 시작과 함께 정계에서 물러난 뒤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은퇴 직후 목포해양대와 서경대에서 5년 동안 '북한화'를 가르친 일과 국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응해주는 것이 그나마 공적인 일. 그 외에는 친지 및 우인들과 골프나 치고 자식들이 있는 해외에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최 전 부의장에게 젊은 날 시련을 가져왔던 문제의 필화사건을 물었다. 1966년 4월 25일, 당시 31세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그는 '소신은 만능인가'라는 비판적 칼럼을 쓴 뒤 저녁 귀갓길에 정계불명의 두 청년들로부터 테러를 당했다. 그는 당시 "소신없는 장관은 물러나라" '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약하고 말하는 박 대통령의 '소신'은 그 '반대 소신'을 전혀 무시한 채 '집권체제의 독주현상'을 빚고 있다'고 썼다.

최 전 부의장은 그 칼럼에 대해 "쓸 것을 썼고 할 말을 했으니 지금도 시원하다"며 "하지만 지금도 읽어보면 등골에 식은 땀이 난다"고 말했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쓴 글이었다고 덧붙였다.

정계 입문 과정을 묻자 최 전 부의장은 답답하게 과거를

(1) 최영철 前 국회부의장

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최 전 부의장이 동아일보 내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MBC 해설주간을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 쉬고 싶었던 그는 부산 등을 돌며 6개월을 야인으로 보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또 사람을 보내 무임소장관실의 정부조정실장(차관보급)을 맡아달라고 권했다. 후배 언론인들을 위해 장관급은 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란 소리를 듣고 받아들였다.

그는 "당시 야당에서는 고홍문씨만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을 뿐 반응이 없었지만 여권으로부터는 수십건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어려울 때 정을 보여준 여권에서 정치를 시작한 만큼 그 이후 단 한 번의 번신도 꿈꾸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정'을 강조했다.

이후 그는 9대 때 유정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고 10대 때는 목포·무안·신안에서 출마, 당선됐으며 5공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11, 12대 의원을 했다. 12대 때 50세의 나이에 국회 부의장의 자리까지 오른 그는 88년 13대 총선에서 황재홍

YS, '노태우 비자금' 미리 알아 대권후보 담판 '히든카드'로 써

풍에 휘말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해 12월 체신부장관에 기용됐다. 또 89년 7월에는 노동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90년 12월 청와대 정치담당 특보, 92년 6월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에 기용됐다.

이 때쯤 기자는 "출세 가도를 달렸음에도 호남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뼈 아픈(?) 지적을 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선택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잘못 모셔 존경받지 못한 대통령으로 만든 데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 정치적인 자리에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두분 대통령이 그 엄청난 축재를 한 것에 놀랐다"며 "그 일이 밝혀진 뒤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의장은 이 이야기 도중 두 가지 증언을 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전직 장관에게 3억 씩 돌렸다는 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 모든 장관에게 탈만한 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차값(당시 2천 800여만원)의 일부인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한 일이 있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YS 대권 도전 비사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YS의 능력을 불신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래도 YS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서 놀랐다"며 "그후 상황을 반추해보면 당시 YS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대권 후보가 된 결정적 바탕이 됐다는 추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자력기자 jrw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별교와 태백산맥

광복직후 좌·우익 갈등 컸던 곳 소설 속 '분단의 상징' 배경으로

옛날 내를 건널 때 대개 징검(노두)다리, 흠다리로 통했고, 돌다리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큰 강은 다리가 없고, 나무가 대신했다. 다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경기도 관교, 진도 석교, 함평 학다리라 알려져 있다. 별교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별교는 '뗏목 별(筏)'에서 기원했다. 별교에 놓인 다리라 해서 '별다리'나, 깃발에 놓인 다리가 때문에 '별개다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태종실록에는 낙안포(樂安浦),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단교(斷橋)로 기록되었다.

별교리는 1908년까지 낙안군 땅이다가 보성군 소속이 되었다. 1914년 별교면이 설치되고, 1929년 동원 강 건너 순천 동초면 땅을 편입하고, 1937년 읍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인구가 5만 명에 가까워져서 시 승격 운동도 있었다.

부용산(193m)과 제석산(560m) 줄기 봉림은 낙안평과 순천만의 목이다. 별교는 낙안고을의 인후지지(咽喉之地)에 자리 잡아 외항, 광 관포 역할을 한 곳이다. 5일장이 서고, 고흥반도의 검문소도 된 요충지였다.



멀리 침산이 보이는 1910년대 별교 전경.

일본인들은 영산포와 같은 별교의 천혜 위치를 보고, 수탈기지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1930년 철도가 연결되자 수물결절지(水陸結節地)라는 장점 때문에 물산의 집산지로 부상, 보성읍내를 능가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광복 직후 별교는 '이쪽과 저쪽' 이념의 불장난처가 되고 만다. 때다리를 비롯 무지개다리(虹橋), 소화다리, 철다리가 좌우로 나뉘어 끊어져 버린 것이다. 분단의 표본 실 구실을 하는 터로 변해 갈등의 골이 패이고, 그 아픔은 작가에게도 전해졌다.

태백산맥이라는 명칭은 1900년대 일본 학자들이 처음 썼다. 1980년대 조정래가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쓸 때까지 별소리 없었다. 1990년대부터 원래 우리 산줄기 체제인 '백두대간'으로 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백산(1567m)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산이다.

예부터 민족의 성산으로 여겨져 천제단을 설치했고, 지금도 개천절에 제를 지낸다. 백두와 태백은 연원을 개보면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를 찾아가 본다. 김사용·범우 집은 봉림리 267번지로 김병욱·중순 소유에서 1964년 임봉열 집이 된다. 현부자 집은 회정리 378번지로 박사윤·사철과 관계된다. 중도의 집은 회정리 799번지로 나가시마(中島辰三郎)에서 1960년대 김씨 땅이 된다. 그밖에 30여 곳이 그대로 무대에 올려져 태백산맥이 별교의 자원이 되었다.

소설 태백산맥은 분단자세를 칭하는 대명사로 근현대사와 항도 교과서다. 작품 속 공간구성이 별교의 지역성을 고스란히 그렸고, 대한 역사의 어려운 부분을 갈파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어린시절 쓰러린 추억을 탁월한 시야로 승화시켜 후배들에게 향토문화의 보물로 전해준 것이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위원장)

양도소득세 전문강의

양도소득세는 생활인의 세금! 아는 것만큼 이익!
중요내용을 사례중심 강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음.
내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연습

과정	강의시간 및 내용	개강
양도소득세	평일반(화·목) A반 14:00 - 16:00(120분)	9/5(화)
	B반 16:10 - 18:10(120분)	이후에는 매월 첫주 화요일(1개월과정)
주말반(토요일)	A반 09:30 - 13:00(3시간30분)	9/9(토)
	B반 14:00 - 17:30(3시간30분)	이후에는 매월 첫주 토요일(1개월과정)
세무회계실무	추후예정 회계원리,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추후예정(3개월과정)

○ 기타사항 ▶ 양도소득세를 알면 당신의 업무능력은 엄청 향상될 것입니다.
▶ 수강신청방법: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을 팩스 또는 전화 접수 후 수강료송금.
정원초과자는 다음 달 수강대상자로 접수

○ 송금계좌: 광주은행 016-107-319348 (예금주 - 이미지) FAX.062)234-0053

종합세무회계학원 ☎(062)234-0052 송정르파출소 옆(밀리오레 맞은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강
주택관리사	FINAL 문제풀이	9월4일(월)
공인중개사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9월 11일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9월 11일 (19:00~21:00)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담후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현관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도청지원번호: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65, 777
▶ 연세고 앞3, 11, 27, 38, 55, 111, 118
▶ 아열대 가문구: 2, 5,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6-2467

공무원 무료 문제풀이

9월 24일 서무직, 10월 1일 서울시대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9월이론반 첫진도 개강 ▶ 9월 1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 주/야간반 운영 ★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낙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전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한 학교형 제도를 운영하고 그것들을 실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습교류 등 개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로 우의 최고 강사진이 선결과제로 담당해야 합니다. 좌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학부, 이공계 출신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역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야 돼"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과내영 선생	▶ 국어/회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물리/정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김치옥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화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생활한 편의 서비스를 위하여는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이 시대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학습의 기회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하는 '온라인'이 시대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합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과학 영미학 심리학
국어 영어 수학
최명현 임미선 김성희
최명현 임미선 김성희

체육 공과대학 일반사회
김종호 최명현 임미선 김성희

현재 심화리 강의중
문의: (02)816-1646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3일 9급세무직' '9월24일 선관위' 시험대비

7급 문제풀이반/이론반 9월 1일

마감일박 1박만수

▶ 전남대 2007년 7급 문제풀이반 개강 / 2007년 9월 1일
▶ 2007년 9월 1일 7급 문제풀이반 개강 / 2007년 9월 1일

▶ 전남대 2007년 7급 문제풀이반 개강 / 2007년 9월 1일
▶ 2007년 9월 1일 7급 문제풀이반 개강 / 2007년 9월 1일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